

서울샘터 교회

2019년 7월 7일

교회력(다해), 전체 32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후 넷째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눅 10:11).



수국이 대원당길 111 마당에서 은은하면서 청초한 빛을 내고 있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e/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안으로 창조의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2,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현재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예측되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질서에 길든 탓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우리의 운명 전체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스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주님, 우리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떨어지거나, 우리의 작은 능력에 감탄하면서 자신을 확대하는 일에 집착하곤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삶의 용기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기쁨까지 빼앗기기도 합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쏟아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해서, 그리고 2천 년 교회의 예배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그것으로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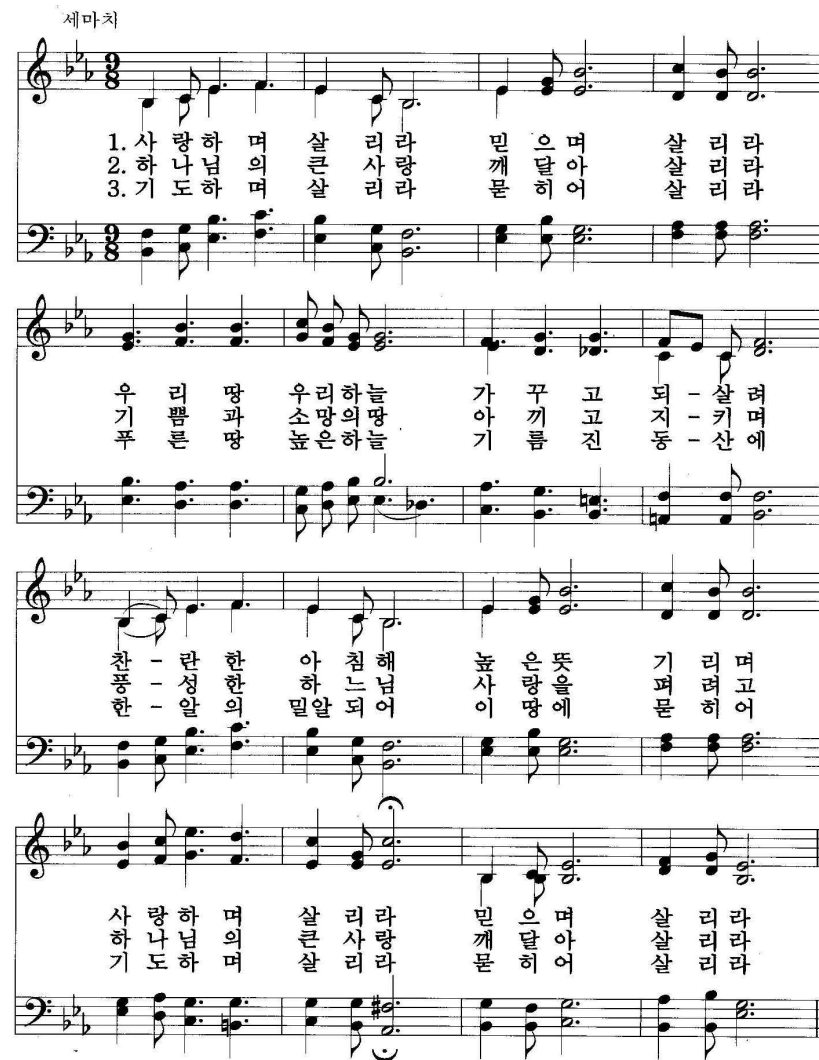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179장 (사랑하며 살리라) ... 다 함께

김경수

나운영



신뢰와 확신, 성도의 생활

요 15:12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직 말씀의 영에 사로잡히기 원하니 붙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열왕기하 5: 1-14 ... 박수진 집사

성서교독 시편 30편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를 건져 주시오니 원수들이 저를 보고 조롱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직 주께 찬양 올립니다

-우리주께 매달리며 살려달라 호소하자 병들었던 이내몸을 주님고쳐 주셨다네
주님께서 스올에서 이몸 끌어 올리시고 나를 살려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하셨다네
-주님 믿는 성도들이 찬양노래 부르거라 거룩하신 이름들어 감사기도 바치어라
주님 진노 잠깐이요 주님은 총 영원하니 저녁에는 울었어도 아침에는 웃으리라
-마음 편히 먹으면서 자신에게 말하기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지만
태산보다 든든하게 나를 지켜 주시던 주 주의 얼굴 가리우자 두려움에 빠졌다네
-주여제가 주님에게 이런탄식 올립니다 이몸죽여 무덤가면 주님무엇 얻으리요
한숨 흠이 어찌주를 찬양할수 있겠으며 한숨 흠이 주의진리 어찌전파 하리이까
-이내탄식 들으시고 자비로움 베푸소서 주님이여 도우소서 저의 도움을 돼주소서
나의주는 슬픔바꿔 춤이되게 하시오며 나의베옷 벗기시고 색동옷을 입히시네
-내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양 하오리니 주님이여 영원토록 주께 감사 하리이다

제2독서 갈라디아서 6: 7-16 ... 박수진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0: 1-11 ... 박수진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예수의 제자 파송 ... 이춘우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2,4절 ... 다 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616장 (주를 경배하리)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639장 (주 함께하소서)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니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이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를 말과 삶으로 선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예배 후 공부모임이 하반기에 재편성됩니다. 자유롭게 원하는 반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지난주일 헌금 494,000원 (주일헌금: 394,000원, 통장헌금: 100,000원)
(2019/6/30)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6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주일헌금	1주	320,000	담임목사 교통비	300,000
	2주	380,000	강사비	900,000
	3주	200,000	대관료	427,680
	4주	286,000	주보비	40,000
	5주	394,000	교육비	70,000
통장헌금		46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선교헌금		100,000	선교비(뉴스앤조이,새물결플러스)	100,000
			간식비	137,000
수입계		2,140,000	지출계	2,024,680
*수입-지출	(115,320)	전월이월액		2,465,529
		현 잔액		2,580,849

7,8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성령강림후 4주 7/7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박수진	윤혜정
성령강림후 5주 7/14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채진진	양혜선
성령강림후 6주 7/21	4층 아트컬리지5실	박재진	윤동희	오미영
성령강림후 7주 7/28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고중흥	박수진
성령강림후 8주 8/4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신창식	이기령

6월 30일 설교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발췌

불 수레와 토네이도

우리는 불 수레와 회오리바람으로 묘사된 엘리야의 승천 경험을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일반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가보십시오. 열광적인 분위기가 불 수레와 토네이도를 타고 승천하는 느낌 못지않을 겁니다. 그들의 콘서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나훈아 콘서트에 가도 됩니다. 이런 가수들의 콘서트 입장권은 발매 10분 만에 매진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종류의 이런 경험을 찾으면서 평생을 삽니다. 문제는 콘서트의 열광적인 느낌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원이나 시디로 느낌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불 수레를 타는 듯한 황홀한 느낌을 비교적 오래 유지해주는 대상은 문학과 철학, 즉 인문학입니다. 대중음악과 인문학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가요 콘서트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끌어올리지만, 인문학은 우리의 세계관을 끌어올립니다. 대중음악이 수준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특징을 말하는 것이니, 오해는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소로우의 <월든>이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통해서 삶을 혁명적으로 새롭게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이해할 것이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바른 방법은 종교 경험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예수 경험입니다. 예수 경험은 엘리야의 승천에서 보듯이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과 같습니다. 여기서 불 수레는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승천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구원, 즉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서 출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인 생명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신앙 경험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진술과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승천했다고, 즉 예수가 부활했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불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경험은 없었다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상이 더 시급해서 불 수레에 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혹시 저에게 “정 목사,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나?”라고 묻고 싶을지 모르겠군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설교자로 살겠습니까. 문제는 불 수레를 타고 올라가다가 종종 땅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다시 추슬러서 불 수레를 탑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오르다가 떨어지더라도 땅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높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지요.

저의 불 수레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삶을 확인하려는 태도이자 욕망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저는 십자가와 같은 치욕스러운 삶에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치욕스러운 운명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거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삶에 숨어있는 생명의 신비를 엿보고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명의 신비는 돈이 들지 않고, 세상의 부와 명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천으로 널린 매실 향이나 민들레꽃에서 생명의 신비를 맛보듯이 그냥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짐을 벗었다는 사실과 일상에 깃든 생명의 신비가 제 안에서 스파크를 일으킬 때 저는 엘리야의 불 수레를 타고 승천하듯이 모든 세상의 억압과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